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주의(Biblicism)에 가까운 원리 변호: 신학적 방법에서 오직 …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부록, 795–838쪽. 원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저널』(WTJ) 59권(1997)에 실린 논문이다. 원제는 'In Defense of Something Close to Biblicism'으로 알려져 있다. 제공된 재료에서는 장 제목이 잘려 있다. 다음 부록이 P이므로 이 글은 부록 O로 보이나 확인이 필요하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리처드 멀러와 벌인 논쟁에서 출발한다. 질문은 이것이다. “성경만이 최종 기준”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오직 성경)가 신학을 하는 방법, 특히 역사신학과 역사 서술에도 적용되는가? 그는 먼저 '역사'를 최종 기준으로 삼았던 19~20세기 신학들이 결국 성경의 권위를 밀어냈다고 짚는다. 이어 자신의 입장이 경멸적 의미의 '성경주의'와는 다르지만 가까워 보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한다.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전통(머레이, 반틸)이 오직 성경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창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 준 뒤, 사실 서술만으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나오지 않는다는 인식론의 원리로 이를 뒷받침한다. 그 다음 같은 기준으로 복음주의 지성주의, 데이비드 웰스의 문화 비판, 캠브리지 선언의 고백주의를 차례로 점검한다. 결론은 이렇다. 오직 성경은 좁은 원리가 아니다. 세속주의와 전통주의 양쪽에서 우리를 지키고, 문화를 섬세하게 분별하게 하는 자유의 원리다. 마지막으로 멀러와 웰스의 반박에 하나씩 답한다.

📜 절별 정리

📜 0. 서론: 왜 이 글을 쓰는가

이 글은 멀러와의 앞선 논쟁(이 책 부록 C)에서 나왔다. 이 책의 5장(계시와 역사),

왔다고 고백한다. 그러면서도 교회사가들이 자료를 더 많이 알고 더 잘 정리한다며 존경을 표한다. 그러나 지금의 복음주의·개혁신학 상황은 농담을 접고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를 진지하게 따질 것을 요구한다. 그는 주로 자신이 속한 정통 개혁파 진영 안에서 말한다. 더 넓은 세상에 말하기 전에 먼저 안에서 정리할 것이 있기 때문이다. 목표는 두 가지다. 오직 성경(성경만이 교리와 삶의 최종 기준이라는 종교개혁 원리)을 다시 강조하는 것, 그리고 그 원리를 신학 작업 자체에 적용하는 것이다.

1. 멀러와의 논쟁(부록 C)에서 출발
2. 역사신학과 조직신학의 관계를 묻는다
3. 교회사가들에 대한 존경은 진심
4. 정통 개혁파 내부를 향한 글
5. 오직 성경을 신학 방법에도 적용하자

> **(직접 인용 없음)**
> 서론은 글의 목적과 배경만 밝힌다

📜 1. 역사

'역사'는 두 뜻으로 쓰인다. 실제로 일어난 과거(객관적 의미)와, 그 과거를 사람이 기억하고 서술하고 해석한 것(주관적 의미)이다. 프레임은 조직신학을 “성경 전체를 적용하는 학문”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주석신학(개별 구절에 집중), 성경신학(성경을 구속사, 곧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의 흐름으로 읽음)과 '관점적으로' 연결된다. 세 분야가 다른 대상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경을 다른 초점으로 본다는 뜻이다. 역사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과거에 적용해 지금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성경과 구원이 철저히 역사적이므로 신학은 늘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성경 시대의 역사는 성경을 이해하게 하고, 성경 이후의 역사는 실수를 피하고 앞 세대의 토대 위에 짓게 한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자율적인 역사 방법(성경의 최종 권위에 매이지 않는 방법)을 택해 성경 대신 '역사'를 최종 기준으로 삼을 때마다 덫이 되었다. 리츨 학파, 종교사학파(트뢸치), 바르트, 쿨만 등의 구속사

순환논증임을 각주에서 인정한다. 다만 진리의 최종 기준을 정당화할 때는 어떤 입장이든 어느 정도의 순환을 피할 수 없다고 답한다.

1. 역사: 실제 과거 vs 사람의 해석
2. 주석·성경·조직신학은 같은 대상, 다른 초점
3. 성경과 구원은 철저히 역사적이다
4. 자율적 역사 방법이 성경을 밀어냈다
5. 최종 기준은 '역사'가 아니라 성경

> **(직접 인용 없음)**
> 이 절은 신학사 비판이 중심이다. 판단 기준은 “성경이 궁극적 규범”이라는 전제다

📜 2. 성경주의

'성경주의'는 보통 욕으로 쓰인다. 네 부류를 가리킨다. ① 일반계시(자연과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밖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 ② 성경을 과학·정치·경제의 '교과서'로 보는 사람, ③ 신앙고백과 신조를 무시하고 매번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 ④ 문맥 없이 구절만 끌어다 붙이는 사람. 프레임은 이런 성경주의와 결별한다. 그러면서도 진짜 오직 성경과 이것을 깔끔히 가르기가 어렵다고 인정한다. 오직 성경은 성경 해석과 신학 방법까지 포함한 모든 것에 성경이 최종 발언권을 갖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는 '해석'과 '적용'을 날카롭게 나누는 관행을 의심한다. 단어 뜻을 찾고 번역하는 일조차 본문에 질문을 던지고 성경 밖 자료로 답하는 일, 곧 적용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하나의 구조를 갖는다. 성경 밖 자료를 다루되, 오직 성경의 원리 아래서 다룬다. 반틸의 말처럼 성경은 축구나 원자를 직접 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든 것에 대해 말하며, 그 중심은 그리스도의 구속 이야기다. 개혁자들도 전통을 뒤엎지 않고 '개혁'했으므로 성경주의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성경주의에 꽤 가까웠다. 또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리는 문맥과 장르, 역사 배경을 꼼꼼히 보게 하므로 ④번 성경주의를 오히려 막는다. 그럼에도 좋은 신학은 결국 “성경 어디에 그 말이 있는가”를 특정 본문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증거 본문이

1. 욕으로서의 성경주의 네 유형과 결별
2. 해석도 넓게 보면 적용이다
3. 성경 밖 자료는 있으나 판단은 성경으로
4. 성경은 모든 것을 직·간접으로 말한다
5. 좋은 신학은 결국 본문을 댈 수 있다

> **(직접 인용 없음)**
>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리와 반틸의 진술로 논증한다

"성경 외적 자료가 있지만 성경 외적인 지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3.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의 오직 성경

웨스트민스터신학교(미국 필라델피아)는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 한가운데서 세워졌다. 다른 복음주의자들이 흔들릴 때도 성경의 무오성(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에 오류가 없다는 교리)을 굳게 지켰다. 그러면서도 해석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다. 학교가 펴낸 교수 논총 네 권은 모두 성경의 권위, 충족성(구원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에 충분히 담겨 있다는 교리), 해석을 다룬다. 학교는 원어 교육과 주석·성경신학·조직신학 교육을 강조했다. 설교학에서는 설교자 자신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쳤고, 변증학에서는 성경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린다는 반틸의 강조를 이어 갔다. 프레임이 특히 주목하는 사람은 존 머레이(1930~1966년 재직)다. 머레이는 교의학의 역사를 존중했다. 그러나 굳어 버린 전통주의와 역사의 닻을 끊는 것, 두 위험을 함께 경계했다. 그는 칼빈이 성자의 '스스로 계심'을 두고 앞선 견해에 이의를 제기한 예를 들며, 각 세대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이단이 온다고 경고했다. 머레이의 실제 저작은 거의 본문 주석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어떤 졸업생은 "진짜 조직신학이 아니라 주석 수업"이라고 불평했다. 하지만 근본주의 친구들에게 "개혁파는 성경보다 전통을 의지한다"는 비판을 듣던 학생 프레임에게, 머레이는 개혁 신앙이 곧 성경의 가르침임을 보여 주었다. 이것이

2. 원어·주석·성경신학 중심의 교육
3. 머레이: 전통 존중, 그러나 정체는 경계
4. 머레이의 신학은 거의 본문 주석
5. “개혁 신앙은 곧 성경의 가르침”

> **사도행전 20:27 (암시)**
> '하나님의 전체 경륜'이라는 표현이 이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원문에 장절 표기는 없다
>
> **사도행전 20:27**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 4.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신학적 창의성

흔히 정통은 정체·전통주의와 짝지어진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오직 성경에 대한 헌신이 오히려 창의성을 낳았다. 머레이의 독립적인 교리 정리가 그랬다. 반틸은 인식론과 변증학에서 새 길을 열었다. 보스를 잇는 구속사 신학자들(스톤하우스, 클라우니, 클라인, 개핀)이 있었고, 성경이 인간 문제의 최종 기준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제이 아담스의 권면적 상담도 있었다. 교회사 교수 폴 울리는 다른 전통의 인물을 깊이 이해하게 하는 탁월한 교사였다. 물론 창의성이 문제를 낳기도 했다. 신율주의(구약 율법을 오늘의 정치·사회 질서에 적용하려는 운동, 러시두니·노스·반센)가 대표적이다. 학교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 운동이 율법을 진지하게 보도록 도전한 것은 인정한다. 쉐퍼드의 칭의론 재해석이나 프레임 자신과 포이트레스의 다관점주의는 평가하지 않고 넘어간다. 프레임은 1960년대 초 학창 시절에 신앙고백서와 『기독교강요』를 거의 읽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그 시절 교육이 고백 전통을 충분히 가르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지금 그는 수업에서 늘 신앙고백서를 읽힌다. 그래도 엄밀한 사고를 길러 준 학교로서는 최고였다. 반틸·클라인·아담스의 독특한 통찰을 정통의 잣대로 삼은 일부 학생들의 문제는 교수보다 학생의 잘못이 크다. 요점은 이것이다. 이 창의성은 세상 사고에 맞추려고 성경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첫 종교개혁자들처럼 성경 자체가 밀어준 창의성이었다.

2. 반틸, 구속사 신학, 권면적 상담
3. 신율주의 같은 문제적 산물도 있음
4. 고백서 교육 부족은 정당한 비판
5. 창의성의 동력은 세상이 아니라 성경

> **(직접 인용 없음)**
> 학교의 역사와 저자의 회고로 논증한다

📜 5. 몇 가지 인식론적 관찰

인식론은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를 따지는 학문이다. 지식에서 '규범'(마땅히 따라야 할 기준)과 '사실'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면, 오직 성경을 신학에 쓰는 것은 필연이 된다. 교회사에서 무엇이 있었는지를 서술한다고 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나오지는 않는다. '~이다'에서 '~해야 한다'를 끌어내는 것은 자연주의적 오류다. 어떤 생각이 어디서 생겨났는지로 그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발생론적 오류다. 이 오류들을 피하려면 교리는 교회사를 넘어서는 기준, 곧 성경에 호소해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오직 성경을 로마 교회의 전통관(전통을 성경과 같은 권위로 보는 견해)과 갈라놓는다. 그리고 오직 성경 원리 자체도 성경에 근거한다. 성경 스스로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자리에 두는 것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1. 사실 서술은 규범을 정하지 않는다
2. 자연주의적 오류·발생론적 오류 경계
3. 교리는 교회사를 넘는 기준에 호소
4. 로마 교회의 전통관과 갈리는 지점
5. 오직 성경도 성경에 근거한다

> **이사야 29:13**
>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전통을 말씀과 같은 자리에 두는 것에 대한 정죄의 원형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마태복음 15:8-9

예수님이 이사야를 인용해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는 예배를 헛되다 하신다

8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7:6-7

같은 말씀의 병행 본문으로, 전통이 말씀을 대신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6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7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골로새서 2:22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규율을 바울이 경계한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 6. 오직 성경과 복음주의적 지성주의

전성기의 개신교는 오직 성경을 인간 이성과 맞세우지 않았다. 이성은 성경의 규범을 경험의 자료에 적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이다. 루터와 칼빈은 학자였다. 츠빙글리는 취리히 예배에서 음악을 빼고 예배를 성경 공부 모임처럼 만들었다. 개혁교회 일부는 플라톤처럼 음악의 감정적 힘을 경계했다. 그래서 악기를 빼고 시편만 불렀고, 예배는 미적 경험보다 지적 경험이 되었다. 프레임은 지성이 의지와 감정을 일방적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지성 우위설'과 이런 학교식 예배 모델을 모두 거부한다. 개신교가 지성주의를 너무 밀어붙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

규범을 구분하는 데 있다. 반틸의 비유로 말하면, 둥근 톱은 잘 돌아가도 방향이 틀리면 엉뚱한 곳을 자른다. 2차 대전 뒤의 신복음주의(칼 헨리, 오켄가, 빌리 그레이엄 등)도 학문을 회복하려 했다. 그러나 반틸을 거부하고 불신앙과의 공통 기반을 찾다가 '비평 학계'의 규범을 받아들였다. 프레임은 이것이 1960년대 무오성 포기의 발판이 되었다고 본다. 쉐퍼와 그 동료들(기니스, 웰스 등)은 무오성을 지키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성경에 세속과 다른 고유한 인식의 기준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객관적 진리'라는 추상적 개념에 초점을 두어 오직 성경 원리와 완전히 맞지는 않았다.

1. 이성은 성경 규범을 적용하는 능력
2. 지성 우위설·학교식 예배는 과잉
3. 문제는 지성이 아니라 지성의 '기준'
4. 신복음주의는 비평 학계 규범을 수용
5. 쉐퍼도 성경 고유의 인식 기준은 약함

> **(직접 인용 없음)**
> 신학사 분석과 반틸의 '둥근 톱' 비유로 논증한다

📜 7. 복음주의의 문화 비판

데이비드 웰스는 『신학실종』 등에서 현대성이 새 사고방식을 낳았다고 분석한다. 주관주의, 심리 치료식 접근, 경영·마케팅 전문성 집착, 소비자 만족을 앞세우는 상업주의, 결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실용주의다. 이 때문에 신학이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은 '가볍고 쓰기 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프레임은 웰스의 박식함과 비판의 진실성을 인정한다. 그러면서 마르바 돈의 지적에 동의한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사랑, 곧 현대인에게 진리를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관심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방법이다. 웰스는 신학의 우선성을 외치면서도 실제 도구로는 역사학과 사회학을 쓴다. 대안으로는 '옛날이 좋았다'는 전통 회귀를 암시하거나, 마케팅 교회를 거꾸로 비춘 거울 이미지를 남길 뿐이다. 프레임은 성경 자체가 문화를 단순히 부정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교회와

말씀이 정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분명한 소통 기술은 배울 수 있다. 반면 죄를 말하지 말라는 조언은 거부해야 한다. 결혼이나 염려 같은 일상의 필요도 복음으로 다룰 수 있다. 설교에서 객관적 진리를 더 강조해야 한다는 웰스의 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객관과 주관을 양자택일로 만드는 것은 틀렸다. 성경에는 체험과 감정의 증언이 가득하고, 구원에도 주관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1. 웰스: 현대성의 다섯 사고방식 비판
2. 문제는 도구가 사회학·역사학이라는 점
3. 단순 부정은 거울에 비친 같은 모습
4. 성경은 문화를 분별해 쓰게 한다
5. 객관 vs 주관은 거짓 양자택일

> **고린도전서 1-3장**
>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 사이에 대립이 있음을 인정하는 근거다

> **요한복음 17:9-25**
> 교회와 세상이 구분된다는 근거다
>
> 9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4:4

세상과 벗됨을 경계하는 대립의 근거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2:15-19

세상 사랑을 경계한다. 다만 대립이 '전면 부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8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로마서 1장

불신자도 진리를 알지만 억누른다. 그러므로 세상 안에도 진리의 조각이 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6]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

마태복음 23:1-4

위선적인 서기관·바리새인도 어느 정도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9:19-22

바울이 복음을 위해 듣는 이처럼 되었다. 문화 적응의 핵심 본문이다

[19]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갈라디아서 5:19-21

바울에게도 자유가 없는 영역이 있었다. 문화 적응의 한계선이다

[19]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마태복음 28:18-20

하나님은 복음 전파에 인간의 수단을 쓰신다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0:14-15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 인간 책임과 수단의 근거다

14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21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 주권과 수단이 함께 간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에베소서 5:22-33

결혼이라는 일상의 필요에 성경이 답한다

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

염려라는 일상의 필요에 성경이 답한다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 6:1-14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산다. 구원의 주관적 측면이다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

고린도후서 5:17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관적 변화의 근거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10:10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삶. 구원의 체험적 차원이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행전 2:38-39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마태복음 15:1-9

(각주) 예수님이 전통을 말씀 위에 둔 바리새인을 꾸짖으셨다. 원칙주의자로 보이는 쪽이 오히려 전통주의자일 수 있다

1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2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3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4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5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

📜 8. 고백주의

고백주의는 교회의 신앙고백서를 진지하게 따르려는 태도다. 1996년 무렵 나온 '캠브리지 선언'은 종교개혁의 '오직' 원리들로 '새로워진 고백주의'를 권한다. 프레임은 이 선언이 오직 성경을 “전통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중심이기 때문에” 고백한 점을 반긴다. 그러나 선언은 웰스의 논조를 닮아 있다. 교회가 상담가나 마케터에게 배우려는 이유를 불신앙으로만 본다. 하지만 세상에 다가가려는 선한 동기도 함께 있다. 선언은 20세기 초 복음주의를 이상화한다. 원문의 '1세기 초'는 문맥상 '20세기 초'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그때의 선교 운동은 서구 제국주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순수한 반문화도,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다. 선교, 교회 성장, 마케팅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긍정적으로 안내하는 문서다. 프레임은 고백주의를 지지하되 여섯 가지 남용을

옛 논쟁에 집중하기, ⑤ 다른 고백 전통과의 공통점을 무시하기, ⑥ 자기 공동체 안의 자기비판을 막기. 참된 고백주의는 전통주의가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전성기에 그랬듯 오직 성경을 되풀이해, 우리를 실제로 성경 앞에 세우는 것이다.

1. 캠브리지 선언의 오직 성경은 환영
2. 불신앙만 탓하는 진단은 일면적
3. 과거 이상화는 역사적으로 미숙
4. 고백주의의 여섯 가지 남용 경계
5. 고백주의는 전통주의가 아니다

> **(직접 인용 없음)**
> 선언문 분석이 중심이다. 기준은 “고백서도 성경 아래”라는 원리다

📜 9. 결론

오직 성경을 더 일관되게 적용하면 웰스의 분석은 더 나아질 수 있다. 현대 문화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지점도, 하나님의 복을 담은 문화 요소를 쓰는 길도 함께 보이기 때문이다. 흔히 좁고 답답한 교리로 여겨지지만, 오직 성경은 실제로 시야를 넓혀 문화의 복잡함을 보게 한다. 단순한 전통주의나 무조건적 부정보다 더 큰 자유를 준다는 점에서 해방의 교리다. 동시에 문화를 쓰는 데 참된 한계도 그어 준다. 그래서 현대주의자와 타협적 복음주의의 덫을 피하게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강조하는 오직 성경은 문화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다. 세속주의와 전통주의 양쪽에서 우리를 지켜 준다.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학과 사회학 같은 학문보다 앞서야 한다. 학문의 출발점, 방법, 결론을 다스리는 기준이 성경이다.

1. 오직 성경은 시야를 넓히는 원리
2. 전통주의·단순 부정보다 큰 자유
3. 동시에 참된 한계를 그어 줌
4. 세속주의와 전통주의 양쪽을 막음

> 앞 절들의 결론을 모은다

📜 10-1. 멀러와 웰스의 답변에 대한 응답 ① 멀러에게

WTJ에 이 논문이 실릴 때 멀러와 웰스가 답변을 냈고, 프레임은 다시 응답한다. 멀러의 입장은 이렇다. 오직 성경은 신앙과 삶의 교리적 원칙이지만 역사 서술의 원리는 아니다. 역사 서술은 신학적 전제에 기대지 말고, 최소한의 상식적 가정만 가지고 본문의 뜻을 끌어내야 한다. 프레임은 묻는다. 하나님이 삶의 모든 영역의 주님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면, 삶의 일부인 역사 서술은 왜 예외인가? 교리가 모든 삶에 관계한다면 방법에도 관계한다. 성경이 빵 요리법이나 루터의 출생 연도를 알려 준다는 뜻은 아니다. 성경은 '최종 규범들의 묶음'으로서 충분하다는 뜻이다. 토마스 아퀴나스조차 세상이 영원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을 신앙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기적 증언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흄의 기준도 그리스도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멀러 자신도 리츨 등의 역사 서술을 그 편향 때문에 거부하니, 사실상 성경적 거부권을 쓰고 있는 셈이다. 성경은 역사 철학도 준다.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섭리 아래 목적을 향해 가며, 인류는 문명의 진보로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다. 멀러가 든 컴퓨터 소프트웨어 예에 대해서도 답한다. 세상이 계산 가능한 합리적 세계라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이 보증한다. 그리고 성경이 막지 않으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성경의 '허락' 아래 갖는다. 부활처럼 미리 정해진 결론도 있다. 반틸은 예수의 시신을 찾으러 팔레스타인에 가 보라고 비행기표를 제안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반면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몇 해를 보냈는지 같은 문제는 열린 질문이다. 성경이 해석 공동체 없이는 아무렇게나 휘는 '밀랍 코'라는 경구가 성경 자체의 애매함을 뜻한다면 강하게 반대한다. 마케팅을 아디아포라로 보는 견해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아디아포라는 성경이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아 양심에 맡겨진 일을 뜻하는데, 이 개념이 성경 권위의 범위를 피하는 핑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장이 도예베르트주의로 들린다는 지적에는, 그들을 비판해 왔지만 카이퍼가 일깨운 “모든 영역의 주권”은 모두가 거듭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답한다.

1. 멀러: 역사 서술엔 오직 성경 적용 불가
2. 프레임: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주님

4. 멀러 자신도 성경적 거부권을 쓴다

5. 부활은 정해진 결론, 연도는 열린 질문

> **고린도전서 10:31 (암시)**
>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역사 서술도 예외가 아니라는 논증의 바탕이다. 원문에 장절 표기는 없다
>
> **고린도전서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 10-2. 멀러와 웰스의 답변에 대한 응답 ② 웰스에게

웰스는 프레임의 비판이 과녁을 빗나갔다고 했다. 프레임은 자신이 웰스를 칭찬도 많이 했다고 상기시킨다. 그리고 “성경보다 사회학과 역사가 권위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바로잡는다. 그의 비판은 웰스가 성경 권위를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웰스의 책이 문화를 평가할 뚜렷한 성경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웰스가 “모든 지식은 성경의 허락 아래 얻는다”는 원리를 인정한 것은 반갑다. 다만 그렇다면 성경 원리를 문화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웰스는 '옛것이 더 낫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18세기 웬햄을 '달콤한 낙원 상실'로 묘사한 것은 그렇게 읽힐 수밖에 없다. 독자도 저자가 실제로 무엇을 전했는지 판단할 권리가 있다. 웰스는 사랑이 거룩의 표현이라고 답했다. 프레임은 이 말이 논리적으로 옳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교회 분쟁에서 '진리가 곧 사랑'이라는 말이 진리를 몽둥이로 휘두르는 핑계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바울의 말이 불필요한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음 전도와 예배에 대한 웰스의 다른 글을 놓친 것은 사과한다. 역사와 조직신학의 관계를 더 다뤄야 한다는 지적에도 동의한다. 이 글을 '안전지대로의 후퇴'로 보는 웰스에게는, 그렇다면 영적 전쟁을 위해 보급을 모으는 전략적 후퇴라고 답한다. 머레이와 반틸의 방법은 현대성과 싸우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 큰 싸움에서 같은 편이다.

1. 비판 대상은 권위가 아니라 '기준 부재'

4. 진리와 사랑의 균형은 실제 과제

5. 논쟁해도 더 큰 싸움에선 같은 편

에베소서 4:15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가 곧 사랑이라는 논리로 사랑의 실천을 건너뛸 수 없다는 근거다

>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잠언 27:17 (암시)

'철이 철을 날카롭게.' 건설적 비판도 격려의 한 방식이라는 근거다. 원문에 장절 표기는 없다

> **잠언 27: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에베소서 6:11 (암시)

'하나님의 전신 갑주.' 오직 성경의 방법이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비유다. 원문에 장절 표기는 없다

> **에베소서 6: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긴다.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성경주의(biblicism)
성경 밖 지식을 무시하고 성경을 모든 분야의 교과서로 쓰거나 문맥 없이 구절을 끌어다 쓰는 태도. 보통 비판하는 말로 쓰인다.

자율·중립성
어떤 최종 기준에도 매이지 않고 생각한다는 태도. 프레임은 사람은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무엇인가를 섬기므로 이런 자리는 없다고 본다.

관점적(perspectival)
여러 분야가 서로 다른 대상이 아니라 같은 대상을 다른 초점에서 본다는 뜻. 프레임 신학의 기본 틀이다.

증거 본문(proof
text) — 어떤 교리가 성경 어디에 근거하는지 보여 주는 구체적 구절. 남용하면 문제지만, 신학이 결국 기대야 할 곳이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Scriptura ipsius interpres)
한 구절의 뜻을 성경의 가까운 문맥과 먼 문맥,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정한다는 해석 원리.

자연주의적 오류
'~이다'라는 사실에서 '~해야 한다'라는 규범을 곧바로 끌어내는 잘못.

발생론적 오류
어떤 생각이 어디서 생겼는지로 그 생각이 옳은지를 판단하는 잘못.

아디아포라(adiaphora)
성경이 명하지도 금하지도 않아 각자의 양심에 맡겨진 일.

대립(antithesis)
하나님을 믿는 사고와 믿지 않는 사고 사이의 근본적 대립. 반틸과 쉐퍼의 핵심 개념이다.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오직 성경은 교리뿐 아니라 신학 방법, 역사 서술, 문화 판단에도 적용되는 최종 기준이다.
- 성경 밖 자료(역사, 사회학, 학문)는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평가하는 궁극 규범은 성경뿐이다.
- 사실을 서술하는 것만으로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전통도, 학계의 결론도 성경 아래 선다.
- 오직 성경은 전통주의와 세속주의 양쪽을 막는다. 문화를 단순히 부정하지 않고 분별해 쓰게 하는 자유의 원리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22편 · 오직 성경, 그러나 혼자 읽지 않는다 · 성경주의와 전통주의 사이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